

추석 명절 가정예배(추도예배) 순서지

1. 묵상기도 : 다같이

2. 신앙고백 : 다같이

전능하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 찬송 :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가 359장) 다같이

1절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 길에 장애를 두려워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2절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3절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네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후렴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있네

4. 대표기도 : 담당자(뒷면참조)

5. 성경봉독 : 시편 21편 1~13절 다같이

1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2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3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4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5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6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7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8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냄이여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9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10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함이여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11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12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함이여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13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6. 설 교 : 인도자(뒷면참조)

7. 합심기도 : 다같이

8.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 예문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수 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가정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예문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움츠러든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척과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이전처럼 자유롭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끝까지 잘 버텨낼 수 있을지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1. 승리했던 기억을 떠올리십시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부른 시입니다. 시편 21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8절부터 13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승리의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았고(1절),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결과이며(2절), 자신에게 승리의 관을 씌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3절).

다윗이 자신의 승리를 회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승리의 관을 씌워주신 기억은 앞으로 어떻게 다시 또 승리를 거머쥌 수 있을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이겨낸 승리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가정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주신 기억은 미래의 승리를 기대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억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로 삼아 보십시오.

2. 승리할 미래를 상상하십시오.

시편 21편의 첫 번째 단락(1~7절)은 과거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8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단락은 앞으로의 승리에 대해 노래합니다. 과거의 승리가 미래의 승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다윗도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며 미래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과거에 그리했던 것처럼 다윗도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7절), 대적을 소멸할 것이며(9절), 악인들의 음모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11절).

코로나로 시작된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이겨내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겨낼 것입니다.

이번 추석,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며 온 가족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시 21:1)